

'6·3지선' 민주당 10곳 우세... 부산·대구·서울 막판 격전

여론조사서 경북 1번 대부분 우위 TK·부울경, 보수층 결집 움직임 후보 확정 후 판세 변화 '최대 변수'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상으로는 경북을 뺀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보수 결집 양상이 보이고 있어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기·충북·대구 등 3곳을 뺀 13곳 광역단체 가운데 10곳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이날 추경호 의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 역시 이후 여론조사를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과 호남, 제주 지역은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캐스팅 보터'인 충청권(대전·충남·세종) 역

시 전반적으로 여당에 기운 모양새다. 거기에다 상대적 힘으로 꼽히는 강원에서도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이나 부산, 울산도 어느 정도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다만 부산이나 울산은 오차범위 내 결과가 많았다. 경북은 국민의힘이 크게 앞선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선 20대 대선 직후 치러진 2022년 지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양당 지지를 격차 역시 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정권 지원론'이 우세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 경북을 제외한 모든 곳을 차지한다면,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산이나 대구, 울산, 경남 등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일단 부산은 국민의힘 후보로 현직인 박형준 부산시장

격차를 줄이는 모양새다. 후보가 확정되자 지지층이 결집한 셈이다.

대구의 경우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최근까지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마로 보수분열 우려가 사라지면서 세 결집이 가속화될 수 있다. 울산과 경남 등은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무난하고, 부산과 대구에서 보수 결집이 일어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서울도 여론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서울시장 선거 역시 정영오 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상 격차가 살짝 줄어든 상태다. 이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후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야 주요 후보 현황> (23일 오전 각당 발표 기준) /그래픽 뉴시스



김부겸 선거사무소,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文 전 대통령, 축하 영상으로 지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중앙당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신공항 신설 지원 등을 언급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달서구에 있는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 최고의 '스타 마케팅'을 원한다면 김부겸"이라며 "대구에서 김부겸은 확실한 필승카드"라고 했다.

이어 "제가 '오랏차차 김부겸'을 카피로 정해왔다"며 "땀은 영어로 RAT(Robot·AX·TK 신공항)인데, 로봇(Robot) 수도 대구를 만드는 데 전담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AX(AI 전환) 수도를 만드는 데 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K 신공항을 만드는 데 당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대구·경북, 경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26일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구 통합 문제도 김부겸이 (당선) 되자마자 당의 사업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김부겸과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그냥 다 해드립니다'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승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열쇠이고 지름길"이라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의 선거는 김부겸의 얼굴로 치르고, 중앙당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며 "김부겸이 당대표 보

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않고, 뒤에 서있으려면 그렇게 하며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인사시키며 "대구 시민들께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저는 대구에서 세 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구를 사랑한다"며 "대구를 사랑하는 만큼, 저는 대구에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할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대구·보수 대통합 이뤄낼 것"

국민의힘은 26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3선 중진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을 확정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예비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25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추 의원은 유명하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덧발' 수선에 나선 추 의원의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다.

1960년생인 추경호 의원은 대구 출생으로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관료로서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치



고, 2016년 제20대 총선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으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되며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지역 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한 후, 제22대 총선에 출마해 75.31%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추 의원은 2024년 5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같은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국수부족으로 불성립된 직후 사퇴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후보 수락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 대구 대통합으로 '더 큰 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대구에서 배우고 꿈꾸고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이 대통령 "비거주 양도세 감면, 투기 권장"

>> 1면 '내치 복귀 후'서 계속

또 순방 마지막날인 지난 24일에는 '장특공 폐지 논란' 기사를 공유하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투기권장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특공은 집이나 땅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세를 덜 내게 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해당 의제를 꺼낸 후 야권은 공세를 퍼붓는 등 논란이 되

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걸 보여주며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발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비거주 투기'에 대해 또 다른 규제를 언급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를 타깃으로 삼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서영교, 민주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시사

"국조·법사위원장 역할 집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사실상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출마를 고심했지만, 이번에는 국정조사위원장으로, 법



제사법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경제입법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각기소 국정조사위원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질렀던 만행(조작행위)들을 모두 밝혀 국민께 보고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 경악할 일들"이라며 "최선을 다하며 진상을 규명해내고 계시는 국조위원들과 윤석열 정치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조작을 낱날이 더 밝혀내 꼭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